

광저우(廣州) 농민공 시위사태의 현황 및 전망

중국권역별·성별연구단 김홍원 연구원

■ 6월 11일 광저우 외곽에 위치한 쑹청(增城)시 신탕(新唐)진에서 현지 정부 및 도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대규모 농민공 시위사태가 발생함.

- 지난 10일 현지 치안요원이 임산부인 농민공이 운영하는 노점을 상대로 관리명목의 관행적인 뒷돈을 요구하였고, 이를 거절한 농민공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촉발됨.
 - 이번 시위는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및 지배층의 권력남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그 시위대상은 정부기관, 광둥성 도시 호구(戶口) 소지자(도시민) 및 공장 고용주 등임.
- 광둥성 정부가 대규모의 시위진압군을 배치하고, 저녁 시간대 통행 제한을 실시하면서 지난 3일 간(11~13일)의 시위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.
 - 정부의 대규모 군부대 투입 및 반정부 시위대 구속 후 사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이나, 해당 지역 농민공의 파업계획이 보도되고 있어, 사태 진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.¹⁾

■ 특히 농민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민공과 소수의 광둥성 현지인 사이에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관계가 깊어진 가운데, 이 사건을 계기로 불만이 폭발함.²⁾

- 시위 중심지인 신탕진의 따둔(大敦)촌은 세계적인 데님소재 의류 생산기지로, 농민공이 전체인구의 약 90%를 차지하여 농민공의 요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임.³⁾
 - 따둔촌의 상주인구는 약 6만 7000명으로 그 중 농민공 인구가 6만 명에 달함.
 - 따둔촌 농민공의 60%가 쓰촨(四川)성 출신이며 30%가 허베이(河北)성 출신임.
- 농민공 밀집지역 내에는, 소수민족자치구에서 나타나는 소수민족과 한족 간 갈등구도와 유사한 농민공과 도시민 사이의 갈등이 존재해왔음.
- 농민공의 시위로 정부 유관기관 건물·경찰차 외에 일반차량 및 민간 상점도 피해를 입었으며, 이러한 사태에 불안을 느낀 현지 도시민을 중심으로 자위대가 구성되는 등 갈등이 확대되었음.

■ 광저우시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정부 홍보물을 배포하고 기자 회견을 실시하면서, 공장 고용주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안 유지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함.

- 각 지방 언론매체·옥외광고·이동통신 문자서비스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정부 홍보물을 배포하고, 현지의 쓰촨성 출신 지도층 및 현지 기업 대표 등을 중심으로 농민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사태수습을 위한 회유·설득을 촉구함.
- 피해자 농민공의 사망 관련 루머가 유포되자 정부는 관련 정보 작성자를 처벌하고, 피해자의 가족을 대동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있음.

■ 본 사태는 차기 상무위원의 후보로 거론되는 광둥성 당서기 왕양(王洋)의 정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나, 강경책으로 일관된 이번 조치는 12·5 규획시기 “행복한 광둥”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.

-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고 발표하였으나, 해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시위진압군이 민간인에게 실탄을 장전한 총기와 수류탄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.⁴⁾
 - 현지 공안국에서는 체포자 수를 약 150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, 실제로는 최대 1,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음.
- 6월 20일 쑹청시 공안국은 시위 가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과 표창 내용 및 제보자의 도시호구 취득 허용방안을 발표하였음. 이를 통해 시위 관계자의 처벌 및 시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줌.⁵⁾
 - 위의 조치는 농민공 내부 신고자를 겨냥하여 발표한 것으로 시위대의 내부분열을 유도하고 있음.
 - 포상금은 5,000~10,000위안으로 이는 농민공 평균 월급의 3~5배에 이르는 금액임.
 - 농민공은 도시호구 획득을 통해 과거에 누리지 못한 도시부문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.
- 일부 네티즌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무력진압 등을 통한 사태수습에만 급급한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비판하였음.⁶⁾
 - 현지 언론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속한 호구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농민공에 대한 차별폐지를 주장함.

-
- 1) news.searchina.ne.jp(2011.06.16). 「広州暴動ひとまず沈静化も、「1カ月ストで金持ちに報復せよ」の声」.
 - 2) 본 시위사태 발생 사흘 전인 6월 6일, 광둥성 차오저우(潮州)시에서 쓰촨성 출신 농민공이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번 시위사태의 규모가 확대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.
 - 3) South China Morning Post(2011.06.15). 「Denim town finds uneasy peace」.
 - 4) The Epoch Times(2011.06.14). 「Chinese Military Moves on Restive Guangzhou Suburb」.
 - 5) 财经网(2011.06.20). 「广东增城悬赏新塘事件线索 外来工举报可给予户口」.
 - 6) 중국 재정부 자료에 의하면, 2010년 중앙정부는 국방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국내 치안유지비를 지출하였음. www.asianews.it(2011.06.13). 「Guangdong: thousands of migrants protest against local authorities and residents」.